

자전거 타며 신행 · 봉사 한 번에

대한불교자전거연합회 창립 발대식 봉행

전국 자전거 인구는 500만 명 시대. 친환경적이고 건강까지 지킬 수 있다는 이유로 자전거 인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스님과 재가 리더를 중심으로 불교자전거연합회가 출범해 화제다.

대한불교자전거연합회(총재 성문, 이하 불자전거연합회)는 4월 29일 대구 동화사 통일대불전 앞에서 창립 발대식을 개최했다.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게 될 불교자전거연합회는 자전거 안전 홍보와 지역 학교폭력 감시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주요사업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청소년 폭력 방



대한불교자전거연합회가 4월 29일 대구 동화사에서 발대식을 개최했다. 자전거연합회는 지역내 정기적인 순찰을 통해 청소년 폭력 예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대구지역 청소년 폭력 감시 활동 전개
인근 사찰 돌며 신행 · 봉사도 함께 할 터
자전거 사찰 순례코스 개발할 예정
서울 · 경기도에도 지부 개설 계획

지를 위한 순찰에 연합회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다.

불교자전거연합회 사무총장 효신 스님은 "지난해 대구 중학생 자살사고로 지역에 큰 충격을 겪었다. 학교주변과 우범지대를 정기적으로 순찰하고 청소년 폭력 신고 전화인 '117' 홍보에도 힘쓰고 있다"며 "단순한 동호회가 아닌 사회적 역할까지 함께 하려 한다"고 밝혔다.

스님은 이어 "대부분 산악자전거를 타다보니 산에 많이 오른다. 산별 예방 캠페인도 더불어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불교자전거연합회인만큼 신행활동도 정기적으로 이뤄

지고 있다. 현재는 인근 사찰을 중심으로 당일 순례와 무료 급식 봉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앞으로 템플스테이와 연계해 1박 2일로 다녀올 수 있는 라이딩 순례 코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사찰과 사찰을 잇는 산길을 산악자전거로 순례하는 5일 일정의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뚜르 드 프랑스'와 같은 장기 레이스 대회도 유치하거나 개발한다는 게 연합회의 복안이다.

현재 불교자전거연합회에 등록된 회원 수는 58명. 하지만 비등록으로 참여하는 대구 지역 불자는 800여 명에 달

한다. 향후 울산, 구미, 영덕, 김천 등 경북지역에 지부를 신설하게 되면 회원 수는 3000명에 이를 것으로 연합회는 예상하고 있다.

효신 스님은 "자전거를 좋아하는 불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연합회로 만들겠다. 환경을 지키며, 신행 · 여가 · 사회봉사를 함께 하는 모범적인 조직으로 이끌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어 "서울, 경기도에도 지부를 만들어 함께 활동할 수 있으면 한다. 이 같은 방안을 현재 포교원과 각 지역 전법단과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신종일 기자 molp79@hyunbul.com

“불법홍포에 매진할 것”

조동종 행운사 부처님 점안식 봉행



(사)대한불교조동종 양평 행운사(사회주 덕룡 법공)는 4월 28일 이운식 및 석불 점안식을 봉행했다. 이날 점안식에서는 종정 덕찬 지명 스님과 총무원장 덕우 대은 스님 등 종단 원로 스님들과 200여 대중이 참석했다.

지명 스님은 이날 "어둠과 번뇌 망상에서 해매는 중생들을 위해 수행과 교화를 결행하는 용기를 갖자"며 "행운사가 불자님들께 마음의 안식처가 돼 불법홍포와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총무원장 대은 스님은 "회주이신 덕룡 범공 스님과 주지 행진 스님의 노력으로 오늘 불국토 도량이 장엄됐다"며 "중생제도로 정토구현의 대승보살도를 실천해가자"고 격려했다.

청운 경남남부지사장

봄날 사찰음식의 향연 펼쳐

참꽃문화제 행사 일환으로 마련

대구 수도암 주지 승원 스님은 4월 28일~5월6일 대구 소재사(주지 각만)에서 사찰음식 운영전문점 대표들과 함께 사찰음식 전시를 시연했다. 이 행사는 달성군에서 주관하는 제15회 비슬산 참꽃문화제 '비슬, 백년의 약속 천년의 사랑' 행사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사찰음식전문점 '큰나무집 밥'이 사찰음식을 시연해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승원 스님은 지난해부터 달성군에서 사찰음식 운영 지도 법사스님으로 위촉받아 활동 중이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어르신 건강과 행복 기원

무심사 새마을 경로잔치

대구 무심사(주지 무심)는 4월 29일 '제14회 이방면 새마을경로잔치'를 열고 1000여 명 어르신에게 식사를 대접했다. 무심사는 지역 어르신들에게 밥 떡 과일 등을 대접하고 법교 시연으로 부처님 법음을 전했다. 주지 무심 스님은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자리를 마련했다"며 취지를 전했다. 한편, 무심사는 5월 13일 제5회 수륙대법회 및 경로잔치를 계획하고 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소외된 이웃 위해 전액 기부”

화엄불교대학총동문회 자선바자회

화엄불교대학총동문회(회장 이근재)는 4월 29일 전주 옥성문화센터에서 화엄불교대학 발전기금과 노인복지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를 개최했다. 이날 바자회는 불교용품과 약초, 청국장, 된장, 고추장, 화장품을 비롯해 다양한 음식들이 판매됐다.

이근재 회장은 "행사에서 얻어진 수익금은 금산사 복지원, 서원노인복지관, 화엄불교대학, 전북불교회관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부산서 한국불교중흥 위해 노력”

울종)불교조계종 부산총무원장 취임

울종)불교조계종(총무원장 혜인)은 4월 27일 코모도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부산총무원장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부산총무원장에는 옥성사 주지이자 부산 동부경찰서 경승인 월봉 스님이 취임했다.

월봉 스님은 취임사에서 "불심의 고장 부산에서 새롭게 한국불교 중흥의 큰 그림을 울종)불교조계종 부산총무원이 그려나가겠다"라고 다짐했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세계 조리대회서 선보인 사찰음식

불교문화사업단, 사찰음식 홍보

2012 대전조리대회 '서 사찰음식 홍보관 운영' 사찰음식전문가 42가지 음식 전시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지현)은 5월 12일까지 대전 무역전시관에서 열리는 '2012 대전세계조리사대회(WACS Congress 2012 Daejeon)'에서 한국사찰음식홍보관을 운영한다.

2012 세계조리사대회에는 세계 97개국 39개 요리종목에 890여 요리사들이 참가해 각국 요리를 선보였다.

'생명을 살리는 건강발효 사찰음식'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한국사찰음식홍보관에서는 대안, 선재, 우관, 적문, 정관, 홍승 스님 등 한국을 대표하는 사찰음식 전문가들이 42가지 다채로운 사찰음식을 전시한다.

5월 1일 개막 이후 5일째와 6일째날에는 제2전시관 카페테리아 무대에서 사찰음식 조리법을 현장에서 배워보는 '한국 사찰음식 시연회'도 펼쳐졌다. 5일에는 선재 스님이 '연잎밥'을, 6일에는 대안 스님이 '버섯된장찌개'를 시연했다. 스님들의 각 사찰음식 조리과정과 함께 한 강연은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사찰음식홍보관에서는 관람객들이 직접 사찰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한국 사찰음식 체험마당'도 열렸다. 또 명원문화재단이 한국전통다도 체험을 통해 차례 및 올바른 식문화 정착 캠페인을 전개했다.

노덕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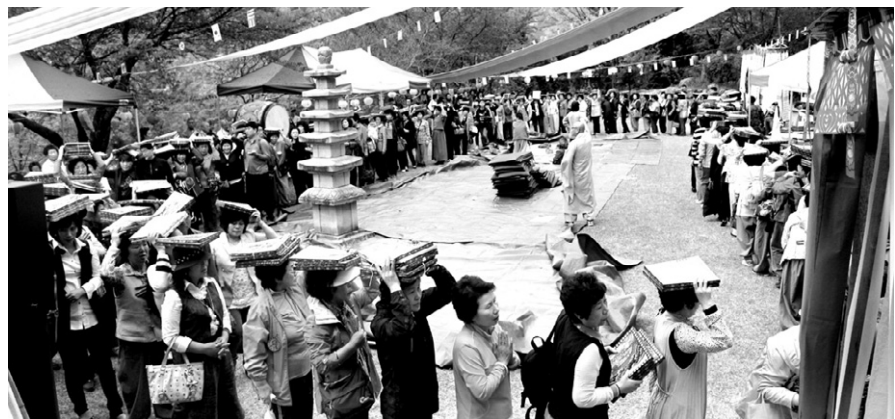
“자기 자신부터 닦는 연습해야”

무량종 4월 29일 생전예수재 봉행

대한불교무량종(종정 혜안)은 4월 29일 지리산 칠보정사 극락보전에서 생전예수재를 봉행했다. 행사에는 종회의장 보인 스님, 교무원장 보산 스님 등 종단 주요 스님들을 비롯해 10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종정 혜안 스님은 법어에서 "부처님은 생사윤회의 괴로움을 면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의 행업을 닦아야 한다고 하셨다. 이번 행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덕을 쌓고 업장을 소멸하는 시간이다. 앞으로 이웃을 보살피고 항상 자기를 관조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법문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자비신행회, 어버이날 바자회 개최

1000여 점 물품 판매금으로 이불보시

"사용하지 않는 물건은 보시하고, 필요한 물건을 값싸게 구입하면서 수익금은 사회복지사업에 사용되니 1석 3조네요."

자비신행회(이사장 이화영)는 지난 5월 2~4일 2일간 어버이날 독거어르신 지원과 나들이 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를 개최했다.

후원자와 차봉사님의 물품지원으로 마련된 이날 바자회는 여름의류, 가방, 생활용품 등 전체 1000여점의 물품을 판매했다.

이날 바자회는 여름의류, 가방, 생활용품 등 전체 1000여점의 물품을 판매했고, 판매금 전액으로 봄 이불을 구입해 지역 어르신들에게 80채를 전달할 예정이다.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김월희 팀장은

"바자회는 불교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기쁜 행사인 것 같다. 물건을 보시하는 분들과 구입하는 모든 분들이 행복해 보여 즐겁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날 물품보시를 한 이춘엽 봉사자는 "이웃들에게 물품 보시를 권했더니, 모두 반갑게 물품을 내주었다. 물품을 내준 분들의 의미를 살려 어려운 이웃들에게 좋은 선물로 전달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비신행회는 5월을 맞아 8일 어버이날 기념행사와 12일 광주공원 자정면 법사, 15일 어르신 봄 나들이, 19일 전통시장 점심지원 행사를 개최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경남 포교의 중심사찰로 발돋움”

거제 대원사 육화당 낙성 및 사리친견법회 봉행

거제 대원사(주지 자원)는 4월 29일 교무원 육화당 낙성식과 부처님 진신사리십대제자 사리 친견법회를 봉행했다.

부처님 진신사리 및 십대제자 사리는 국제지도자협회 묵탁 스님이 미안마 연방 정부 종교성과의 오랜 인연으로 모시게 된 것이다. 육화당 교무원은 향후 지역주민과 불자님들의 템플스테이 및 포교활동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1부 법회, 2부 축하공연으로 진행됐다. 주지 자원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교무원인 육화당을 잘 활용해 경남

포교의 중심사찰 거듭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대원사는 국제불교지도자협회 및 국제선불교조계종(종정 묵탁)의 총찰이다. (055)632-1028

노덕현 기자



조계종 부산聯, 2대회장 수진 스님 취임

1일 코모도호텔서 지역별 조직

조계종 부산연합회 제2대 회장에 해운정사 주지 수진 스님이 취임했다. 조계종 부산연합회는 5월 1일 코모도 호텔에서 회장 이취임법회를 봉행했다.

수진 스님은 취임사에서 "부산에는 300여 개가 넘는 사찰이 산재해 있는 만큼 조

직 강화와 화합에 힘쓰겠다"며 "대중이 함께 소통하는 연합회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초대 회장 수불 스님은 이임사를 통해 "연합회 회원 사찰 모두 합심해 불도(佛都) 부산이 수행과 전법의 공동체로 가꿔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제자들과 나는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語 - '삶이 곧 불법'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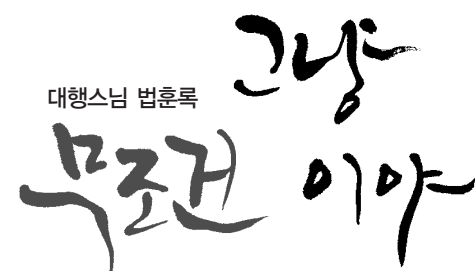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한마음 선원장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상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현대불교 현불상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www.hyunbulshop.com